



지드래곤



수지



서태지

“주인공은 ‘여러분’ 입니다”

김제동 ‘톡투유 2’ 진행...“삶의 이야기 전하고 싶어”



“마이크를 놓으면 나는 뭘까” 생각해보려고 마이크를 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놓지 않은 셈이 돼서 좀 뻘뻘하네요. (웃음)

방송인 김제동(44·사진)이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 프로그램 ‘김제동의 토크투유’ 1년 만에 돌아왔다. 최고 시청률 3.6%까지 기록했던 지난 시즌의 부제는 ‘걱정 말아요 그대’였고, 새 시즌은 ‘행복한가요 그대’이다.

김제동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퍼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즌2에서 꼭 하고 싶은 건 조금 더 우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앞에 선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쪽이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잃지 않고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제동은 지난해 6월 시즌1이 종영한 뒤 지난 1년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점도 잊지 않고 짚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제작진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잃지 않고 가겠다는 게 참 고맙다”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그 사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방향을 잘 이끌어 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이하시는 말씀들을 충분히 잘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낮은 객석, 높은 무대가 ‘톡투유’가 가진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대중의 목소리를 가진 판단 없이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톡투유’는 제가 하는 방송 중 1순위이고, 위로로 많이 받는다”고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시즌의 관련 포인트는 출연진이 ‘행복 여행’이라는 콘셉트 아래 전국 각지를 찾아가 청중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포맷, 김제동과 유리, 정재찬 한양대 교수 등 3인 3색 ‘공감술사 MC’가 이끄는 소풍, 커피소넌-제이레미-폴킴의 청중 맞춤형 선곡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민수 PD는 “시즌1과 닮았을 것”이라면서도 “부제를 ‘행복한가요 그대’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에 프로그램의 분위기도 밝게 하고 싶었다. 삶의 다양한 이야기에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30분 방송. /연협뉴스

따뜻한 세상 만드는 ★들의 선한 영향력

스타들의 선행이 가치를 공유했던 팬들의 동참으로 이어지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그룹이 된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펼치는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 캠페인은 국내외 팬들의 기부와 선행으로 확산하는 파급력을 보여줬다. 또 국내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가수 선의 제안으로 다시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다수 인기 스타가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기부를 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팬들의 기부 릴레이로 번졌다.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이 성숙하게 진화한 팬덤 문화의 단면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 방탄소년단 캠페인에 세계 팬 동참...총 모금액 11억 원 돌파

지난해 11월 방탄소년단과 빅히트가 5억원 기부금으로 시작한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모금액은 6개월 만에(5월 31일 기준) 총 11억5460만원(5억원 포함)으로 집계됐다.

‘러브 마이셀프’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캠페인으로, 이 모금액은 유니세프가 전 세계 아동·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해 펼치는 캠페인인 ‘엔드 바이올런스’(#END violence)에 2년간 지원된다.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에 공감한 팬들은 ‘러브 마이셀프’ 기부에 동참했고, 해외 팬들은 직접 선행을 실천했다.

태국 아미(팬클럽)인 ‘BTS 타일랜드’(BTS Thailand)와 ‘캔디클로버’(CANDYCLOVER)는 “방탄소년단을 통해 타인에게 사랑을 전하는 영감을 받았다”면서 방탄소년단 데뷔 5주년을 맞아 지난해 연말 프로젝트를 진행해 20만cc를 모았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캠페인 일환으로 일본에서도 시작

방탄소년단 유니세프 기부

전세계 팬 동참 모금액 11억 돌파

선, 루게릭병원 건립 아이스버킷챌린지

7년만에 병원 부지 마련 ‘결실’ 등

스타 추종서 성숙한 팬덤 문화로

됐다. 방탄소년단과 빅히트는 지난 4월 일본 유니세프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 투어 기간에 공연장에서 판매되는 캠페인 관련 소품 등 공식 굿즈(상품) 수익금 전액을 일본 유니세프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 스타들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팬들도 기부 릴레이 승일희망재단 공동 대표인 가수 선이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제안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는 배우 다니엘 헤니와 박보검·장근석, 가수 아이유, 워너원 강다니엘 등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자 팬들도 동참했다.

박보검 팬들은 그의 생일인 6월 16일을 기념해 승일희망재단에 6160원, 혹은 그 배수로 기부금을 내는 후원 활동을 펼쳤고 강다니엘 팬클럽은 200만원, 사무엘 팬클럽은 3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나눔이 이어졌다. 강다니엘의 참여로 한때 재단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재단의 기부 상품 페이지 ‘위드아이시’(Withice)에선 스타들이 착용한 제품 판매도 활발하다. 박보검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할 때 한 배지와 워너원 하성운이 콘서트 때 착용한 별자리 팔찌는 품절이 됐을 정도다.

승일희망재단 관계자는 “이들뿐 아니라 워너, 황지열 등 여러 스타 팬클럽과 개인 팬들이 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다”며 “아역 스타들의 참여로 어린이들도 정

성을 모아줘 무척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선은 루게릭으로 투병 중인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코치 출신 박승일 씨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2011년 7월 승일희망재단을 설립하고, 함께 공동대표직을 맡았다. 재단을 세운 지 7년 만인 지난해 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마련하는 결실을 봤다.

◇ ‘빠순이’ 문화서 진화, 해외로도 전파 스타의 선행이나 사회 공헌 활동에 동참하며 스타를 서포트하는 팬덤 문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일어났다.

지드래곤이 꾸준히 기부 활동을 펼치자 팬클럽은 그의 생일인 8월 18일에 맞춰 어린이재활병원에 818만 원을 기부하는 등 매년 나눔 문화에 동참했다.

또 서태지 팬클럽은 서태지의 예고 프로젝트에 착안, 훼손되어 가는 브라질 열대우림 지대를 살리기 위해 ‘서태지 숲’을 조성했고, 수많은 팬클럽이 스타의 공연장에 쌀 화환을 보내 격려사등을 띄우는 데 동참했다. 수지와 양요섭 등의 스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 제품을 사용하면 팬들의 호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때로는 팬들의 선행에 감동한 스타가 함께 참여하는 등 스타와 팬의 따뜻한 상호 작용은 꾸준히 이어졌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 소속된 한 기획사 부부장은 “과거 아이돌 팬덤은 극성이라는 이유로 ‘빠순이’, ‘사생팬’으로 불리며 골칫거리 이미지가 있었는데, 점차 스타를 추종하는 데서 벗어나 함께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성숙한 문화로 발전했다. 팬덤의 이러한 활동은 스타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획사 홍보 실장은 “한국과 같은 사회 참여형 팬덤 문화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며 “방탄소년단 사례처럼 이 문화는 해외 팬들에게도 전파되며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 S 뉴스 광장	00 굿모닝 러시아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아시아 전문시장 스페셜	25 닥터 365 30 나도 엄미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UHD 부처님 아들이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슈츠(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	00 SBS 12 뉴스 15 만방 네트워크 뉴스 30 2018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특집 2부작 임도의 길(재) 50 한국인의 밥상(재)	00 속보이든TV 인사이트(재)	45 TV속의 TV	
2	4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4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하이라이트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5 프리파라 3 45 양크로 MBC 스페셜	
4	00 시사간건	00 여유만만	45 가자! 낭만 고향 스페셜	00 화점기행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꼬미탐정 토비와 테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25 생방송 빛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월드컵 투데이 30 2TV 생생정보	3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프리뷰쇼 미러볼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인형의 집	20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포르투갈·모로코, 예선 B조>	20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포르투갈·모로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 9			00 훈남정음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송터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 퓨전국악 콘서트 K-소리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2018 러시아월드컵 <A조, 우루과이·시우디>
12	4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세상의 모든 다큐	3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마늘 볶음밥과 모듬 채소구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세계의 잔치음식 대만 마추죽제, 순례자의 만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07:00 웅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09:00 엄마 까투리	15:15 파프리카
09:30 원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0:30 한국기행(재)	16:15 웅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말랄라 뿌우(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뽀뽀뽀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초이슈
	20:40 세계테마기행 <시청자와 함께하는 3부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탈리아>
	21:30 한국기행 <>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0일(음 5월 7일 癸未)	
子	36년생 인간관계로 인한 기쁨이 클 것이다. 48년생 작은 이익 앞에서 현혹 될 필요는 없다. 60년생 지금은 번거롭더라도 머지않아서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72년생 잡자고 있는 것이 낫다. 84년생 척척 맞아 떨어져서 쉽게 풀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73	午	42년생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법이다. 54년생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66년생 믿음이 간다면 선택해도 무방하다. 78년생 빈틈없는 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다. 90년생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알차다. 행운의 숫자 : 01, 41
丑	37년생 마음만 먹으면 능히 해결 될 수도 있는 마당이다. 49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니라. 61년생 어렵잡아서 처리해도 된다. 73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가 루 수밖에 없다. 85년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74, 50	未	43년생 실수를 차려야 할 때이니라. 55년생 면밀한 조치가 취약점을 보완하게 된다. 67년생 정리되어야 확실한 선택이 가능하다. 79년생 생기는 하나 만족 시킬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 91년생 궤도난마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73, 37
寅	38년생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임하라. 50년생 남에게 말도 못할 가슴 답답한 일이 생기리라. 62년생 목적해 왔던 바와 조우하게 되는 뜻 깊은 날이다. 74년생 생색만을 내려는 이가 보인다. 86년생 근본에 대한 원칙을 고수해야 할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75, 23	申	44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해야만 발전을 기약한다. 56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하다. 68년생 요인을 해소하자. 80년생 세심하지 않으면 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92년생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차차 적응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4, 15
卯	39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51년생 다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63년생 의례적인 절차를 중시하라. 75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87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지어다. 행운의 숫자 : 52, 59	酉	45년생 문제가 있다. 57년생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야 할 때다. 69년생 급하지 않다면 가끔씩 뒤로 미루는 것이 이득이다. 81년생 진중해야만 견뎌 낼 수 있느니라. 93년생 넓은 관점으로 조망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58, 35
辰	40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52년생 무너진 길을 고쳐 닦는 입장이 된다. 64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야 보일 것이다. 76년생 부차적인 일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88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6, 84	戌	34년생 배를수록 효과가 크다. 46년생 면밀한 분석이 절실하다. 58년생 중간에서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70년생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82년생 평생토록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93, 25
巳	41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 53년생 낙관 하다가는 큰일을 그르친다. 65년생 핵심을 찾아야만 결론에 도달한다. 77년생 경제성과 효율성을 견지하라. 89년생 오랜 인연의 끈으로 맺어질 사람을 만나리라. 행운의 숫자 : 85, 69	亥	35년생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년생 열성을 다 해야 할 시기이다. 59년생 기준에 있어 왔던 것이 니 다루기가 용이 하겠다. 71년생 반드시 확인해야만 급락하는 형세를 방지한다. 83년생 별 탈은 없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92, 11